

* 돼지관련 축산소식 *

‡ 재래돼지도 복원

최근 재래닭 복원에 성공해 눈길을 끈 농촌진흥청이 우리 고유의 재래돼지 복원에도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국재래돼지는 한국전쟁 후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률이 높은 다른 품종의 흑색 계통과 교잡이 성행하여 멸종위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 및 충남 청양 지방의 재래돼지 유전자원 수집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과학원을 비롯한 각 도 축산 연구기관에서는 재래돼지를 증식하면서 농가분양과 순수화 복원사업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한국 재래돼지의 6개 집단들은 유전적 유사도가 높은 같은 계통으로 분류됐다. 축산과학원이 제시한 재래돼지는 검정색 털에다 체중 22.5~32.5kg에 머리는 뾰족하고 이마에 산(山) 모양의 주름을 가진 특징이 있다고 했다.

‡ 젓먹이용사료 급감

젓먹이자돈사료가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급감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1월 양돈사료량은 47만9천톤으로 전달 48만7천톤보다 1.6%가 줄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젓먹이 사료는 1만5천톤으로 한달전 2만4천톤, 07년 1월 2만8천톤 대비 각각 35.9%, 45.6%가 적었다. 젓먹이 사료가 2만톤 이하를 기록한 것은 05년 2월 1만9천톤 이후 3년여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젓먹이 사료가 크게 감소한 것은 최근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가격이 비싼 젓먹이 사료 급여 기간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사육규모를 늘리기보다 현상유지 또는 줄이려는 농가들이 많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젓먹이 사료가 줄면서 자돈용 사료생산량은 14만톤으로 전달 14만3천톤, 지난해 동월 14만6천톤 대

비 각각 2.1%, 4%가 감소했다. 비육돈용은 23만7천톤으로 12월 24만4천톤에 견줘 2.7%가 감소한 반면 일년전 21만4천톤에 비해 10.9%가 증가했다. 번식돈용 사료는 102천톤으로 07년 동기간과 같았으며 전달 10만톤보다 1.5%가 많이 생산됐다.

‡ 미스미스필드사, 모돈 4~5% 감축 계획 발표

세계 최대 양돈업체인 스미스필드사가 모돈 4~5%를 즉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이 축산보다는 바이오에탄올 증산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곡물가격이 양돈에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경영조치를 취한 것이다.

‡ 미돈가 반등, 생돈 100파운드당 40달러대

미국 돈가가 지난 1월초 생돈 100파운드당 35달러대의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 2월 중순 현재 40달러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P&C는 아이오와 주립대 자료를 인용, 작년 최저가를 보였던 11월 이후 미국의 양돈농가는 비육돈 출하두수당 29달러씩(약 2만7천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미국의 돼지두수가 전년비 4.2%나 많아서 공급두수가 많았고 이로 인해 올 들어 2월 중순까지 매주 도축두수가 220만두대를 유지해 전년대비 10%이상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P&C측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P&C는 "미국내 모돈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 1월간 모돈 도축두수가 3.2% 더 늘었고, 대규모농장들이 모돈을 팔아 치우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미 임신한 모돈을 감안한다면 08년도 출하두수는 전년비 4%나 증가해 연중 평균가격은 생돈 파운드당 40달러 중반으로 예상된다"고 정P&C측은 분석했다.